



원각사 탐골공원 무료급식소에서 배식봉사에 참여한 서초반야회 회원들이 밝게 웃으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만큼은 법관과 변호사 등의 사회적 위치를 잊어버리고 한명의 봉사자로 즐겁게 배식봉사에 나섰다.



새로 개원한 무료급식소는 50여명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찾는 어르신도 늘어나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민일영 대법관(사진 왼쪽 2번째)과 이선미 변호사 등이 배식 행렬에 앞서 직접 나물반찬을 받위에 올리고 있다.

“어르신 한끼 공양에 우리 마음도 불러옵니다”

다시 시작된 서초반야회 탐골공원 배식봉사 현장

4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의 원각사 무료급식소 주방. 무료급식의 배식시간이 다가오자 녹색 앞치마를 갖춘 봉사자들의 손놀림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멸치볶음, 도토리묵 등 나열된 각종 반찬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큰 솥에 끓고 있던 미역국의 간도 다시 맛봤다. 1년 365일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열리는 배식행사지만 이날 만큼은 봉사자들의 표정엔 긴장과 떨림이 가득했다.

지난 4월 1일 원각사 무료급식소가 다시 문을 연 이후 불자법조인 모임인 서초반야회가 한달만에 배식봉사를 재개한 것이다. 서초반야회는 2009년부터 원각사에서 꾸준히 배식봉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참여한 12명의 법조인들과 사법연수원 다름마법우회 회원들은 및 장애인 등 주민 200여 명을 위해 직접 식재료를 손질하고 조리과 배식, 설거지를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서초 반야회 봉사자들은 설거지팀·조리팀·배식팀으로 역할을 나누었다. 선배 법조인들이 가장 힘든 설거지를 ‘내가 하겠다’고 자청하자 젊은 연수생들이 거들었다. 밥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

아리고자 하는 마음이 밖으로 드러났다.

점심 무렵이 되자 서울 탐골공원에서부터 무료 급식을 받으려는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섰다. 원각사 무료 급식에 평일에는 100~150명, 휴일에는 250~300명의 노인이 찾는다. 22년만에 잠시 휴식을 갖고 재개된 원각사 무료급식소는 초창기보다 규모가 커졌다. 30명 들어가는 식당도 지금은 50명 가까이 수용가능하게 됐다.

매일 봉사에 나서고 있는 김 막걸리(慕傑理) 원각사 봉사회장은 “새로 스님이 오시며 배식장소가 깨끗하고 넓게 바뀌어 어르신들이 더 많이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여섯명 정도이던 봉사자가 지금은 하루 10여명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도 평소보다 많은 이틀인 200여 명이 찾아와 급식소는 10분만에 가득 찼다.

어르신들이 늘어난 만큼 봉사활동에 6년째 개근하고 있는 이광호 변호사는 설 새 없이 그곳에 밥을 퍼 담았다. 민일영 서울법원 부장판사도 그 위에 반찬을 올리며 거들었다. 서초반야회 총무인 반정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종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다른 회원도 설 새 없이 손을 움직였다.

배식 후에는 음료수와 빵을 돌렸다. 예전

서초반야회를 취재한 기자와 그 가족이 봉사에 동참해 어르신들에게 다과를 나눠줬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마워하며 저녁거리로 빵을 챙겨 갔다.

식사를 마친 김모씨(72)는 “설날이나 추석에도 쉬지 않고 문을 여는 무료급식소는 이곳 밖에 없다”며 “오늘도 한 끼 맛있게 먹고 간다. 저녁에는 이 빵을 먹어야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그만큼 노인들에게는 이곳의 밥 한 끼가 ‘점심 한 끼’ 이상이었다.

2009년부터 봉사 진행 60여 법조인 '나눔·희향' 한마음 심시일반 회비모아 배식비용 충당

오히려 이날 봉사자들은 급식소를 찾아온 어르신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서초반야회가 배식봉사를 시작한 이후 빠짐없이 봉사활동을 해온 민일영 대법관은 “나이가 드셨지만 젊었을 적 이분들은 나라 발전에 기여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은 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심시일반의 정신으로 어려움을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이 우리 사회의 도리”라고 했다.

옆에서 배식을 돌던 이선미 변호사는 “고시 공부할 때 아동 후원을 처음 시작한 이후

여러 곳을 돌고 있는데, 이곳 어르신들을 직접 보니 더욱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어르신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웃었다.

배식을 마친 후 식판과 수저를 설거지하던 다름마법우회 소속 한 연수생은 “항후 법조계 활동에서 사회소외계층을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법의 테두리 밖에 소외받는 이들이 많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급식소에는 애로사항도 있다. 22년째 배식이 진행되며 고령의 자원봉사자들이 건강악화로 봉사활동을 그만 둔 것이다. 밖에 걸린 달력에는 반야회를 포함한 여러 단체들이 다녀간 흔적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남은 달력에는 군데 군데 빈공간이 눈에 띄었다.

급식소를 운영하는 심곡암 주지 원경스님은 “4월 운영 재개 이후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에 이렇게 찾아줘 감사하다”며 “힘닿는 데까지 급식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승 안양지법 법원장은 나눔은 곧 자신을 돕는 것임을 강조했다. 박 원장은 “서초 반야회도 처음에는 수행과 신행모임으로 출발했다.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보자는 뜻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봉사는 사실 업무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스스로에게 힐링이 된다”고 봉사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서초반야회는?



4월 1일 양산 통도사에서 진행된 서초반야회 성지순례 모습. 서초반야회는 매주 수요일 대성사 법회와 함께 매년 2회씩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1995년 서초동 법조단체에 근무하는 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 13명이 주축이 돼 만든 서초반야회는 정기적인 성향을 배제하고 매주 수요일 우면산 대성사에서 정기법회와 봉사활동을 병행한다.

현재 판사, 검사, 변호사, 법원직원, 법무사 등 60여명이 회원으로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에는 서울 우면산 대성사에서 정기법회를 보는 한편 매일 마지막주 토요일에는 원각사에서 노력봉사를 진행한다.

매일 둘째주 화요일에는 서초대법원 청사 내에서 경전공부를 하고 있다. 원각사 배식봉사는 박홍우 현 대전고법원장(당시 의정부지법원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원각사 무료급식의 경우 회원들이 매년 20만원씩 모아서 낸다.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한 김동건 법무법인 바른 명예대표를 비롯해 최병덕 법무법인 동인 대표(사법연수원장 역임), 이동홍 前 헌법재판관 등이 역대 회장을 지냈다.

컴퓨터 공학자, 붓다에게서 길을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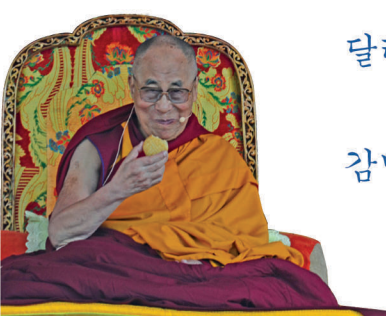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지혜롭고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인공지능이 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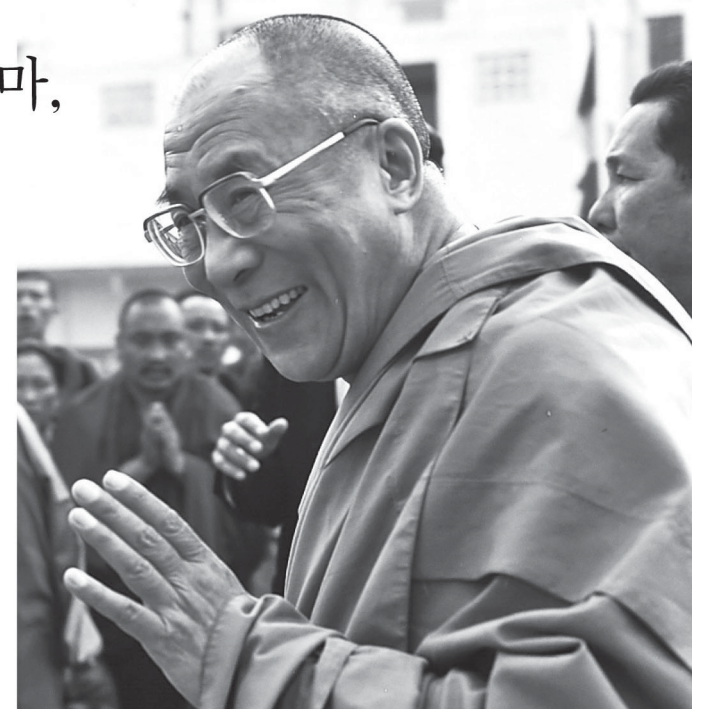
인공지능의 대가이자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폰 노이만을 계승한 저자가, 마음의 과학, 지혜의 과학을 완성한 붓다에게서 미래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하다!

지승도 저/신국판/284쪽/15,000원

사진으로 만나는 달라이 라마,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지혜의 말씀!



소박하고 인간적인
달라이 라마의 모습과
깊은 울림과
감명을 주는 가르침을
담은 책!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하라

20여년 동안 인도에 머물며 달라이 라마와 티벳인들의 수행과 일상의 모습을 사진에 담은 작가가, 그동안 찍은 사진들과 가르침을 한데 모아 엮었다.

이영자 사진/국판변형/전면컬러/280쪽/15,000원